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님,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힘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내 가슴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슬며시 떼어서 주머니에 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는 저와 같은 목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역하셨던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심방을 위해서 ‘자동차’를 제공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차에 붙이실 요량으로 ‘물고기 모양 스티커’를 구입하셨습니다. 이 스티커는 그리스어로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스티커인데요. 익투스의 알파벳 하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말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스티커를 다른 부목사님들에게도 나눠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차를 받은 그들도 차량 뒷편에다 스티커를 붙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 그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인지 물어봤더니, 그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험적인 운전자에게도 착하게 반응해줘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의 상황에 마음 깊은 격려와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결코 가볍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방식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된 입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제언을 전합니다.

먼저 ‘청년’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중적인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인정 방식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삶의 형태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많은 지체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저는 ‘청년’이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사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어떠하게 보이기 보다 하나님을 바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라는 의미도 아니고, “혼자서 하늘 위에 있는 것처럼 살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을 위해서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청년’이 맡겨진 회계 업무를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바울이 ‘신생활’(新生活)로써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로마서 12:14-18)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바울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속한 삶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고, 손해 보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알기에 기꺼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것은 손해 보는 일입니다. 비교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그들의 어떠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께 하듯 하고, 그들과도 화목을 추구할 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어쩌면 이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을 통해서 또 한번 고민하고, 우리 앞에 있는 세상살이를 하나님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잠시 얻는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맛 보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어려운 고민 나눠주어서 고맙습니다.